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The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Career Adaptiveness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Aspirations

1차원고접수: 2023.04.10. 수정원고접수: 2023.06.02. 최종게재결정: 2023.06.19.

소연희¹

¹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o, Yeon-Hee¹

¹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탄력성, 진로포부와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주목적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 339명을 대상으로 측정모형과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결과, 측정모형은 적절한 모형이었고, 애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또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애정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 모두 진로포부와 진로탄력성을 각각 매개로하여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 등을 고려한 전략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진로적응력, 진로탄력성, 진로포부, 대학생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career resilience,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aspi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and career adaptability. A sample of 339 4-year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model based on the measurement model and previous studies. Additionally, bootstrapping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ment model was suitable, and that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Moreover,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through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aspiration. In contrast,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 ha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an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through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aspiration. Regarding the mediating effects, both affectionate and overprotective parenting styles had indirect effects on career adaptiveness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career aspirations and career adaptability, respec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at strategies considering individual career variables such as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aspirat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to enhance university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Keywords *perceived parenting styles, career adaptability, career resilience, career aspiration, college students*

Corresponding to 소연희 (So, Yeon-Hee)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E-mail. yukgam91@kyungnam.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 통계 자료(2017. 12. 14)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주된 고민은 학업보다는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약 60% 이상이었다.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진로의 고민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도 진로교육 및 지도를 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공교육과정 외에도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공모전 등과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연계 활동 등 다양한 진로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생들은 여전히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다. 사실 진로준비는 단기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진로목표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 지도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진로란 개인이 자신의 관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일생동안 가지게 되는 직업의 총체이자 삶의 방향이다(O'Brien & Fassinger, 1993).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적응하는 과정이다. 특히 대학생은 발달적 측면에서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 초기의 단계로 진로관련 과업을 수행하여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적 특성이 있다. 이 시기에는 미래를 위한 진로관련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장희순, 2020). 또한 대학생이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여 졸업 후 취업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출한다는 의미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허강식, 2017). 따라서 대학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진로변인들에는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등 다양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사회에 진출해서 필요한 능력은 진로적응력이다. 비록 대

학생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를 하여 취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취업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진로적응력이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박성열, 고주은, 주민호, 2022; 서인희, 2019; Tien & Wang, 2017)에서는 진로적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 진출 후 진로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 능력, 신념 및 태도인 진로적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적응력은 Super와 Knasel(1981)가 제안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요인들에 개인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며, 취업 후의 개인역량이다. 통계청 자료(통계청, 2020)에 의하면, 청년들 중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8개월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속기간이 짧은 원인 중 하나는 직장에 대한 적응력의 어려움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직업에 대한 청년들의 충분한 이해와 진로적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김성암, 2020; Van Vianen, De Pater, & Preenen, 2009)에서는 높은 진로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도 높았고, 진로준비도 체계적으로 하여 졸업 후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적응력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은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근무 지속기간도 길었다고 하였다(백정기, 2018). 따라서 진로적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성소연, 배성아, 2015; 신영숙, 김장희, 2021)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가 시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 환경요인과 개인특성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의 주요인으로 가정환경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정세운, 2020; 정지은, 정철영, 2015)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관계가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었는지가 진로적응력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의 양육

태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연구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국한되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장희순, 2020; 정세운, 2020)에서는 대학생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영향을 적게 받지만, 성인이 되어 경제 및 심리적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모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은 더욱더 유지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권재환, 박희현, 2014; 이정연, 2022; 정세운, 2020),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란 대학생이 어린 시절부터 지각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자녀에게 요구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Lu와 Zhou(2019)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서적 과잉보호, 무시 또는 회피, 수용적이면서 애정이 깊었는지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진로적응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김소희, 박지영, 손영우, 2018; 서인희, 2019; 정세운, 2020; 허비비, 강진령, 2019) 자녀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진로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도 하였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또는 애정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선택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았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거나 회피한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고, 진로에 대한 적응력도 낮았다(이정연, 2022).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중 진로와 관련 유형에 대해 Roe(1956)는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회피형, 과보호형, 애정과 같은 수용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김누리, 이정운, 2020; 우성현, 안도희, 2022)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간섭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애정과 과보호로 인식하고 있고, 대학생은 발달특성상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 등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피형을 제외한 부정적 인식인 과보호적 태도와 긍정

적 인식인 애정적 태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보호적 태도와 애정적 태도로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 또는 조부모가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부터 대학생까지 경험한 양육자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몇몇 선행연구들(정세운, 2020; Leung & McBride-Chang, 2017)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진로탄력성, 진로 자기효능감 등의 진로개인특성 변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진로탄력성, 진로포부 등 진로 개인특성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진로적응력을 탐색한 선행연구들(김성암, 2020; 신영숙, 김장희, 2021; 이지혜, 2013;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5)에서는 진로적응력은 개인의 능력과 직무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인 진로탄력성이 주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즉, 이들은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환의와 차재빈(2020)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조직사회에서 높은 진로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재 또는 향후의 진로목표 설정과 도달하려는 강한 의지인 진로포부가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진로적응력에 미칠 수 있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진로탄력성이란 진로목표 달성이나 진로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다(London, 1993). 즉,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선택한 진로분야에서 어려움을 접해도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의 공통적 구성요인은 자기신뢰, 진로 자립, 성취열망, 변화대처, 관계 활용 등이 있다(김기승, 2014; 김미경, 2014; Brown, 1996). 자기신뢰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성공하려는 신념이며, 진로 자립은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또 성취열망은 혁신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진로목표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변화대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계 활용은 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진로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이다(김미경, 2014;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관련 선행연구들(이지혜, 2013; 최주영, 정주리, 2020; Tien & Wang, 2017)에서는 진로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아들에게 제공한 피드백과 경험이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애정적 양육을 경험한 자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를 유연하게 하는 높은 진로탄력성을 나타냈고, 이는 진로적응력과도 직결되었다. 반면 과보호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자녀는 예기치 못한 조직의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정하고 대처하려는 의지인 진로탄력성이 낮았고 이는 진로적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진로탄력성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미비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진로분야에서 진로탄력성과 더불어 진로포부는 도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교육으로 습득하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진로적응력과 관련이 깊다(김완석, 박종원, 2013). 진로포부란 개인이 선택한 진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기대이다. 진로포부의 구성요인에는 선택한 진로분야에 대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포부, 교육을 통해 진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부, 자신이 선택한 진로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수행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포부 등이 있다(최재혁, 홍혜영, 2016; O'Brien & Fassinger, 1993). 진로포부에 대한 과거의 개념이 자신의 진로에서 높은 지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진로들의 등장으로, 개인이 원하는 진로에서 교육적 역량, 성취, 대인관계 및 리더십 등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진로포

부는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부터 가정환경과 사회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기까지 점진적으로 발달된다(김완석, 박종원, 2013). 특히 개인이 선택한 진로 또는 직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성의 특성을 포함한 직업적응력과도 관련이 깊다.

O'Brien과 Fassinger(1993)는 청년기 학생들의 진로포부를 신장시키는 것은 선택한 진로분야에서 여러 구성원들과의 협업 및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맡은 임무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여 진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청년기의 진로포부를 향상시키는 것은 자발적인 도전과 진로역량 함양, 진로분야의 성취와 리더십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이환의, 차재민, 2020). 최재혁과 홍혜영(2016)은 진로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진로포부는 선택한 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선택한 진로에 적응하려는 의지와도 관련이 깊다고 하여 진로포부와 진로적응력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진로적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포부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일부 선행연구들(유채은, 조규판, 2012; 이현주, 2014)에서도 보고되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또는 수용적인 경우 진로포부는 높았고, 반면 통제적, 과보호적인 경우 진로포부는 낮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포부가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정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도 가정환경과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포부, 진로탄력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 대한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모형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가설모형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모형 설정을 위해, 진로적응력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탄력성, 진로포부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소희 등, 2018; 이정연, 2022; 허비비, 강진령, 2019)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포부(김완석, 박종원, 2013; 최재혁, 홍혜연, 2016) 또는 진로탄력성(최주영, 정주리, 2020; Tien & Wang, 2017)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결과들(Liu, Zhang, & Huang, 2015; Zhang, Zhou, & Yang, 2019)도 있었다. 특히 Leung 등(2017)은 홍콩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과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Hirschi, Herrman과 Keller(2015)는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진로 개인특성 변인들을 탐색하였는데 진로탄력성, 진로포부, 진로동기, 진로자기효능감 등은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관련성 정도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변인들을 독립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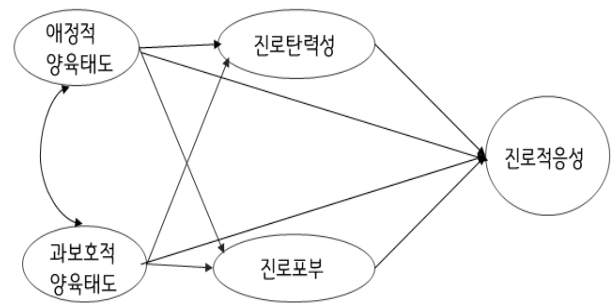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모형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서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을 통해 경남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생 중인 대학생을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 중 동일번호에만 기입하거나 응답을 안 한 불성실하거나 무응답 설문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9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참여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9세(± 2.10)이었고, 여학생은 238명(70.21%), 남학생은 101명(29.79%)이었다. 학년은 1학년은 30명(8.84%), 2학년은 152명(44.83%), 3학년은 101명(29.79%), 4학년은 56명(16.54%)이었다. 계열은 사회과학계열은 187명(55.16%) 인문학계열, 50명(14.75%) 이공계열, 102명(30.09%)이었다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는 Arrindell 등(1999)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기억(Short form of the Eigna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in)를 조한익(2011)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문제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진로탄력성, 진로포부와 진로적응력의 상호관련성과 구조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적 효과는 있는가?

수정 후 타당화한 우성현과 안도희(2022)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대학생 대상 검사는 애정적 양육태도(예: 부모님(주 양육자)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7문항, 과보호적 양육태도(예: 부모님(주 양육자)은 위험한 일은 걱정 때문에 못하게 하였다.) 9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16 문항이었다. 이 척도가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지 교육학 전공 교수 5인의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고, 애정적 양육태도는 .81이었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78이었다. 이 검사의 각 문항에 대한 반응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구성되었다.

2) 진로탄력성

진로탄력성은 김미경(2014)이 개발 및 타당화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2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과 문항의 예는 자기신뢰(예: 나는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5문항, 성취열망(예: 나는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6문항, 자립(예: 나는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 5문항, 변화(예: 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차분하게 대처한다.) 6문항, 관계활용(예: 주변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진로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6문항이었다.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고, 자기신뢰 .78, 성취열망 .79, 진로자립 .80, 변화대처 .74, 관계활용 .78이었다. 교육전문가 5인을 통해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검사의 응답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였다.

3) 진로포부

진로포부 검사는 Kim과 O'Brien, Kim(2016)이 국내에 적합하게 문항을 구성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검사는 3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성취포부(예: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8문항, 리더십포부(예: 내 분야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8문항, 교육포부(예: 나는 내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상급수준의 교육을 계속 받을 것이다.)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성취포부는 .81, 리더십포부는 .87, 교육포부는 .82이었다. 이 측정도구가 본 연구목적에 적절한지에 대한 교육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 검사의 각 문항별 반응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였다.

4)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은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 (Career Adapt-Abilities Scale)를 노윤신과 정철영(2016)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진로적응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 4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은 관심(예: 나의 미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 생각한다.), 통제(예: 내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 호기심(예: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자신감(예: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다.)으로 이루어졌다. 본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고, 관심 .83, 통제, .80, 호기심은 .78, 자신감은 .83이었다. 이 척도가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지를 교육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둘째 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검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등의

윤리적인 내용과 검사지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검사시간은 평균 약 15분 정도였고, 검사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기초통계량과 측정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별로 구성된 측정변인이 적절한지 측정모형을 설정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포부, 진로탄력성과 진로적응력의 변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200부 이상이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측정된 지수는 χ^2 값, GFI(Goodness of Fit Index), PGFI(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Coefficient), NFI(Normed Fit Index) 이었다.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하지만, χ^2 값은 사례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적합도 지수들의 준거에 의해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Loehlin, 2004).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들은 절대적합지수, 비표준적합지수, 증분적합도 지수들이었다. 또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Window용 SPSS/PC+25.0과 AMOS 22.0이었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결과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초통계 값들을 토대로 정규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2를 넘지 않았

고, 첨도는 7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Kline, 2016), 분석 자료들이 정규분포성에 부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정밀도가 낮아 경로계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분석자료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인 분산 팽창계수 값을 구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 값은 1.28을 나타내 기준값 5(Grimm & Yarnold, 200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는 과보호적 태도와는 $r = -.48 \sim -.58(p < .01)$ 로 부적 상관범위를 나타냈고, 진로탄력성의 측정변인들과는 $r = .23 \sim .38(p < .01)$, 진로포부요인들과는 $r = .24 \sim .31(p < .01)$, 진로적응력 요인들과는 $r = .29 \sim .38(p < .01)$ 을 보였다. 과보호적 태도의 측정변인은 진로탄력성의 요인들과는 $r = -.19 \sim -.27(p < .01)$ 을, 진로포부와는 $r = -.19 \sim -.27(p < .01)$, 진로적응력과는 $r = -.21 \sim -.53(p < .01)$ 의 상관계수범위를 나타냈다. 또한 진로탄력성은 진로포부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범위 $r = .18 \sim .23(p < .01)$ 을 보였고,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인들과는 $r = .23 \sim .38(p < .01)$ 의 상관 값의 범위를 나타냈다. 진로포부는 진로적응력의 측정요인들과 $r = .21 \sim .30(p < .01)$ 을 보였다.

2. 측정모형의 적절성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연구가설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실시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full measurement model)이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잠재변인에 따라 구성된 요인들이 적합한지와 잠재변인들 간에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그림 2, 표 2 참조).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chi^2 = 198.15(df = 91, p < .001)$, GFI = .93, AGFI = .98, PGFI = .97, TLI = .94, RMSEA = .06이었다. 이 결과는 적합도의 기준값(Loehlin, 2004) 보다 모두 높아, 설정된 측정모형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측정요인별 표준화 경로계수(β)는 .72 ~ .83로 기준값 .50보다 높았으며,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β)도

표 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결과

(N = 339)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																	
2	.65**	-																
3	.68**	.71*	-															
4	-.51**	-.49**	-.63**	-														
5	-.48**	-.58**	-.53**	.63**	-													
6	-.55**	-.53**	-.55**	.71**	.78**	-												
7	.28**	.23**	.38**	-.23**	-.23**	-.27**	-											
8	.25**	.22**	.35**	-.21**	-.27**	-.23**	.58**	-										
9	.27**	.25**	.33**	-.19**	-.29**	-.21**	.65**	.68**	-									
10	.38**	.24**	.29**	-.20**	-.23**	-.20**	.63**	.65**	.63**	-								
11	.33**	.27**	.31**	-.29**	-.22**	-.23**	.57**	.64**	.61**	.59**	-							
12	.24**	.23**	.28**	-.23**	-.21**	-.27**	.21**	.22**	.27**	.18**	.22**	-						
13	.27**	.28**	.27**	-.24**	-.20**	-.25**	.20**	.21**	.23**	.20**	.23**	.63**	-					
14	.28**	.31**	.28**	-.23**	-.19**	-.27**	.19**	.18**	.24**	.21**	.21**	.72**	.61**	-				
15	.29**	.33**	.29**	-.27**	-.21**	-.28**	.28**	.38**	.30**	.33**	.38**	.59**	.31**	.22**	-			
16	.31**	.35**	.33**	-.33**	-.23**	-.24**	.27**	.31**	.31**	.34**	.33**	.30**	.28**	.24**	.58**	-		
17	.35**	.38**	.37**	-.35**	-.23**	-.25**	.28**	.24**	.29**	.32**	.31**	.28**	.26**	.21**	.61**	.51**	-	
18	.33**	.34**	.31**	-.34**	-.53**	-.26**	.31**	.23**	.30**	.31**	.29**	.27**	.25**	.25**	.59**	.65**	.68**	-
평균	3.84	3.74	3.85	3.56	3.44	3.59	3.98	3.88	3.96	4.00	3.98	3.89	3.95	4.04	4.01	3.99	3.96	4.01
표준편차	.56	.69	.81	1.25	.45	.35	.78	.81	.53	.60	.71	.44	.56	.44	.38	.49	.45	.55
왜도	.25	.17	.22	-.19	-.22	-.75	.54	.48	.36	.41	.44	-.51	-.75	.29	.28	.55	-.85	.59
첨도	.60	.69	.49	.04	-.21	.81	.29	.57	.31	.37	.44	.38	.69	.39	-.28	.23	.39	.61

주. 1. 애정1, 2. 애정2, 3. 애정3, 4. 과보호1, 5. 과보호2, 6. 과보호3, 7. 자기신뢰, 8. 성취열망, 9. 진로자립, 10. 변화대처, 11. 관계활용, 12. 성취포부, 13. 교육포부, 14. 리더십포부, 15. 관심, 16. 통제, 17. 호기심, 18. 자신감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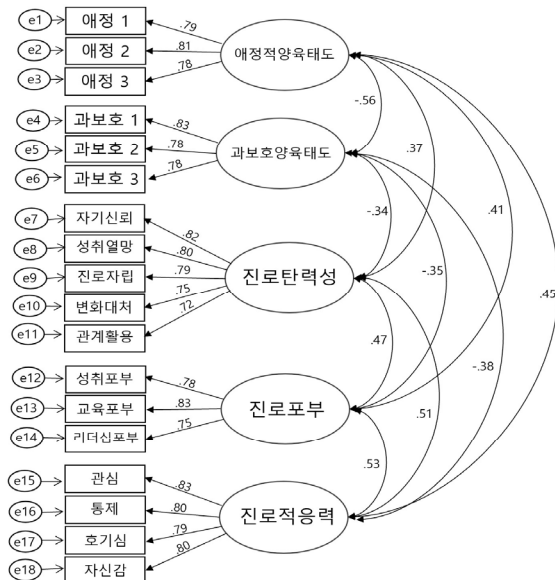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34 ~ .53의 값을 나타내어 적절하였기 때문에(김계수, 2010; Hair, 2010) 설정한 측정모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정된 연구가설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chi^2 = 244.48(df = 88, p < .001)$, GFI = .94, AGFI = .93, PGFI = .92, TLI = .99, RMSEA = .05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적합도 지수 판단기준에 부합되었기에, 설정한 가설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한편,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β)은 .46 이었고, 진로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정도는 .42,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48 이었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β)은 -.41 이었고,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β)은 -.36, 진로포부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β)은 -.33 이었다. 또한 진로탄력성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정도(β)는 .50 이었고, 진로포부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β)은 .51 이었다.

이상의 모든 표준화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참조). 애정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진로탄력성을 설명해 주는 설명량은 41.0%이었고, 진로포부를 43.0%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애정적 양육태도, 과보호적 양육태도,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는 진로적응력은 58.0% 를 설명해 주었다(그림 3 참조).

3.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Baron과 Kenny(1986)는 상관계수가 .30 이상이 되어야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잠재변인들의 상관 값을 살펴본 결과, 애정양육태도는 진로탄력성($r = .37$), 진로포부($r = .41$),

표 2. 측정모형과 연구가설모형의 적합도

모형 및 적합지수	χ^2	df	GFI	AGFI	PGFI	RMSEA	TLI	NFI
측정모형	198.15**	91	.93	.98	.97	.06	.94	.93
연구가설모형	244.48**	88	.94	.93	.92	.05	.99	.95
판단준거			≥.90	≥.90	≥.60	≤.10	≥.90	≥.90

** $p < .01$.

표 3.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표준오차(S.E)	C.R.
애정적 양육태도	→ 진로적응력	.32	.46**	.15
	→ 진로탄력성	.22	.42**	.10
	→ 진로포부	.38	.48**	.12
과보호적 양육태도	→ 진로적응력	-.59	-.41**	.09
	→ 진로탄력성	-.43	-.36**	.08
	→ 진로포부	-.41	-.33**	.08
진로탄력성	→ 진로적응력	1.15	.50**	.11
진로포부	→ 진로적응력	1.01	.51**	.09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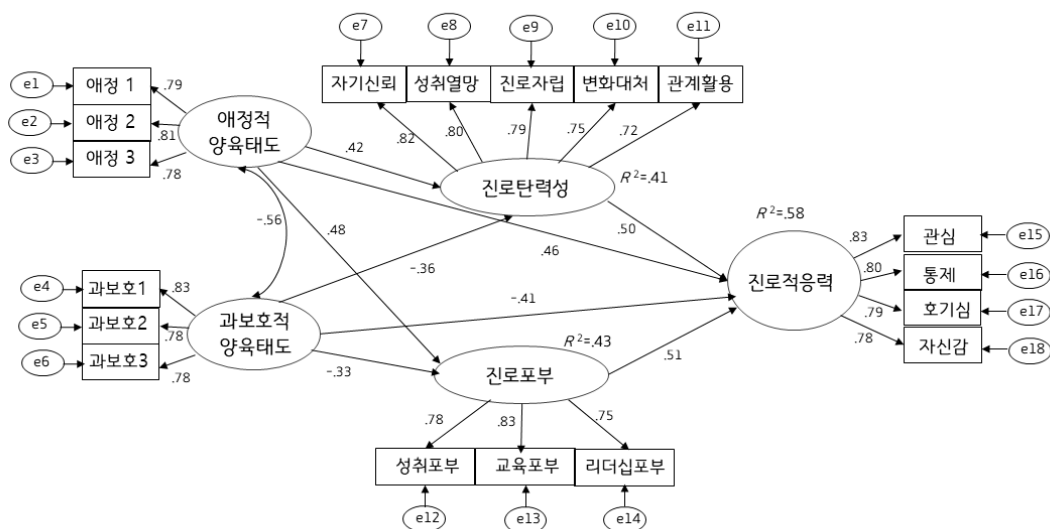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표 4.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잠재변인 경로	매개효과(β)	표준오차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		<i>p</i>
			하한값	상한값	
애정적 양육태도→진로탄력성→진로적응력	.23	.09	.20	.47	.00
애정적 양육태도→진로포부→진로적응력	.27	.08	.18	.59	.00
과보호적 양육태도→진로탄력성→진로적응력	-.20	.09	-.30	-.21	.00
과보호적 양육태도→진로포부→진로적응력	-.19	.11	-.29	-.15	.00

진로적응력($r = .45$)로 .37 이상의 상관계수 범위가 나타났다. 또한 진로탄력성은 진로포부와는 상관계수(r)는 .47 을 진로적응력과 상관계수(r)는 .51을 보였으며 진로포부와 진로적응력의 상관계수(r)은 .53을 나타냈다. 과보호적양육태도는 진로탄력성과의 상관계수(r)은 -.34, 진로포부의 상관계수(r)는 -.35, 진로적응력과 상관계수(r)는 -.38을 나타냈고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상관계수를 통해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트스트래핑 분석결과, 애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는 .23이었고,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는 .25였다. 이 결과들은 95%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의 매개효과는 -.27이었고,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는 -.19이었으며, 이 값도 95% 신뢰구간 상한값과 하한값의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진로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탄력성, 진로포부와 진로적응력으로 구성된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구조적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가 실제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대

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탄력성 또는 진로포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로 개인특성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유순덕, 2019; Khusan & Indianti, 2018; Leung et al., 2017)을 지지하였다. 특히 이 결과는 대학생은 성인초기이지만 사회에 진출하여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와 함께 진로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과 대인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향인 진로탄력성과 진로목표 도달에 대한 신념인 진로포부 등 진로개인특성 변인을 고려하고 이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점도 합의 하였다. 한편 부모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진로변인들의 매개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선행연구들(서인희, 2019; 정세운, 2020)과 본 연구결과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비해 가정환경 외에도 여러 활동과 경험들이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 형성에 관여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중 애정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었고,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는 부정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긍정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매개로 정적으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Leung et al., 2017; Lu & Zhou, 2019)을 지지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력 신장을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와 애정적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자신의 분명한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능동적인 태도와 높은 성취열망을 갖도록 하는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도 강화하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 인식은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를 통해 진로적응력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애정적이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되 실패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인 진로탄력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달하겠다는 강한 진로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도 시사하였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모나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내용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생이 관심 있는 진로분야와 관련된 교내외에서 개최되는 공모전이나 대회에 출전하도록 지도하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로를 지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진로적응력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는 성인 후 진로선택뿐 아니라 선택한 진로분야에 대한 적응력과 포부 및 실패대처에도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함의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Tugade & Fredrickson, 2004; Waters & Sinclair, 2018)에서는 부모

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진로에 부모의 의견과 과보호적 관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진로적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가령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부모님이 과보호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실제 사회나 조직에서 진로적응력을 높이는데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성찰하여 연결지어보는 활동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애정적과 과보호적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진로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새롭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녀가 높은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자녀와 애정적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진로교육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진로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양육태도와 과보호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였기에 진로적응력과 진로관련변인들을 신장하기 위한 부모양육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자율적, 미관여, 헬리콥터 등 다양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 간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에는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측정변인들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적응력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는 대학생들의 전공과 학년에 따라라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전공별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비교해 보고, 학년에 따라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간의 모형의 변화정도를 알아보는 종단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진로에 대한 개인차 변인 외에 흥미, 가치, 정서, 성격 등의 개인특성변인들

과 진로변인과 부모양육태도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넷째, 이 연구는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지역, 계열, 학과, 학년 등을 고려한 군집표집, 층화표집 등의 다양한 확률적 표집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12. 14).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28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에서 2023년 4월 1일 인출
- 권재환, 박희현 (2014). 부모의 양육태도 교수의지지 및 학습동기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인간발달연구*, 21(2), 55-73.
<https://doi.org/G704-000726.2014.21.2.007>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기승 (2014).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누리, 이정운 (2020).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개념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1), 155-190.
<https://doi.org/10.15753/aje.2020.03.21.1.155>
-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암 (2020). 대학생의 진로개발지원, 진로역량,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소희, 박지영, 손영우 (2018).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 진로소명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자기초월가치지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433-458.
<https://doi.org/10.16983/kjsp.2018.15.3.433>
- 김완석, 박종원 (2013). 대학생의 가족영향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26(1), 203-229.
- 노윤신, 정철영 (2016).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주도적 성향,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55-81.
<https://doi.org/10.23840/agehrd.2016.48.2.55>
- 박성열, 고주은, 주민호 (202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교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적응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2), 83-106.
<https://doi.org/10.23840/agehrd.2022.54.2.83>
- 백정기 (2018).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희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분석: 기본심리욕구를 매개변인으로. 서울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소연, 배성아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22(9), 277-299.
- 신영숙, 김장희 (2021).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신념,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29(4), 59-62.
<https://doi.org/10.18230/tjye.2021.29.4.59>
- 우성현, 안도희 (20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것과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67-83.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4.67>
- 유순덕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력과 정서지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채은, 조구판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143-166.
-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https://doi.org/10.15703/kjc.14.1.201302.423>
- 이정연 (2022). 부모애착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성장마인드셋의 매개효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5(1), 41-56.
<https://doi.org/10.32341/JCER.20223.35.1.41>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39-59.
- 이현주 (2014). 남녀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요인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비교. *교육문제연구*, 27(1), 1-28.
- 이환희, 차재빈 (2020). 학생-교수 관계의 질이 교육만족, 진로포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10(3), 71-90.
<https://doi.org/10.35273/jec.2020.10.3.004>
- 장희순 (2020).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307-332. <https://doi.org/10.16983/kjsp.2020.17.3.307>
- 정세운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은, 정철영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1), 79-96.

- <https://doi.org/10.23840/agehrd.2015.47.1.79>
-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내적 통제, 사회적지지 및 진로관여행동의 인과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2(1), 209-234.
- 조한익 (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이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269-287
- 최재혁, 홍혜영 (2016). 진로포부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9(2), 129-143.
- 최주영, 정주리 (2020).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 진로탄력성,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미래교육학연구*, 33(1), 73-96.
- <https://doi.org/10.35283/erft.2020.33.1.73>
- 통계청 (2020). 실업률과 이직률. kosis.go.kr
- 허강석 (201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기능, 진로결정 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비비, 강진령 (2019). 한·중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1025-1047.
-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6.1025>
- Arrindell, W. A., Sanavio, E., Aguilar, G., Sica, C., Hatzichristou, C., Eisemann, M., Recinos, L. A., Gaszner, P., Peter, M., Battagliese, G., Kállai, J., & van der Ende, J. (1999).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EMBU: Its appraisal with students in Greece, Guatemala, Hungary and Ita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4), 613-628. [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192-5](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192-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rown, B. L. (1996). *Career resilience*. *ERIC Digests No.178*.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02474).
- Grimm, L. G., & Yarnold, P. R. (2000).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ir, J. F.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London, England: Pearson Education.
-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https://doi.org/10.1016/j.jvb.2014.11.008>
- Kim, Y. H., O'Brien, K. M., & Kim, H. (2016). Measuring career aspirations across cultures: Using the career aspiration scale with young Korean wome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73-585.
- <https://doi.org/10.1177/1069072715599538>
- Khusna, U. J., & Indianti, W. (2018).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adaptability in grade 12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A. A. Ariyanto, H. Muluk, P. Newcombe, F. P. Piercy, E. K. Poerwandari, & S. H. R. Suradjono (Eds.), *Diversity in unity: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pp. 297-302). London: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https://doi.org/10.1201/9781315225302-37>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eung, S. A., He, W., & McBride-Chang, C. (2017). Parenting styles, career adaptability,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resilience: A study of Hong K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4(2), 81-96.
- <https://doi.org/10.1177/0894845316643120>
- Liu, L., Li, X., Zhang, Z., & Huang, X. (2015).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success: The mediating role of job search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1, 113-121.
- <https://doi.org/10.1016/j.jvb.2015.08.006>
- Loehlin, J. C. (2004). *Latent variable models* (4th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 55-69.
- <https://doi.org/10.1111/j.2044-8325.1993.tb00516>
- Lu, X., & Zhou,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rontiers in Psychology*, 10, 2319.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https://doi.org/10.1037/0022-0167.40.4.456>
- Roe, A. (1956). *The psychology of occupation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https://doi.org/10.1037/13192-000>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 <https://doi.org/10.1016/j.jvb.2012.01.011>
-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 <https://doi.org/10.1080/03069888108258214>
- Tien, Hsiu-Lan S., & Wang, Y. C. (2017). Career Adaptability, Employability, and Career Resilience of Asian People. In *Psychology of Career Adaptability, Employability and Resilience* (pp. 299-314). Berlin: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66954-0_18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https://doi.org/10.1037/0022-3514.86.2.320>
- Van Vianen, A. E., De Pater, I. E., & Preenen, P. T. (2009). Adaptable careers: Maximizing less and exploring mo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4), 298-309.
- Waters, T. E. A., & Sinclair, K. O. (2018). Positive memories of negative events: When negative experiences benefit peopl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7(3), 181-187.
- Zhang, J., Zhou, L., & Yang, X.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aspiratio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6(3), 228-241.
<https://doi.org/10.1177/0894845318802552>